

국 제 수 산 월 간 동 향

2024. 2.



한국원양산업협회

KOFCC 해 외 수 산 협 력 센 터

목 차

1. 美알래스카 부족민, 북 베링해 저층 트롤 시험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준비 3
2. 제안된 캘리포니아 법안이 자망어업을 제한할 예정 4
3. 美, 2023년 수산물 무역 200억 달러 적자 5
4. 다랑어 수은 농도 지속적으로 높은 이유 6
5. 미국 상원의원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어업지원법 발의 7
6. 이동성 동물 보호 협약(CMS) 제14차 당사국 총회 9

- 알래스카의 몇몇 부족 정부가 북 베링해의 저층 트롤 시험연구를 막기 위해 NOAA 어업과 미국 어류 및 야생생물 서비스*를 고소할 예정임
- 북 베링해의 저층트롤 시험연구를 중지하기 위해 알래스카 부족 정부와 생물다양성 센터에서 NOAA 어업과 미국 어류 및 야생생물 서비스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할 예정임
 - * 미국 어류 및 야생생물 서비스 (U.S Fish and Wildlife Service): 국가 야생생물 관리를 위한 미국의 연방 단체
 - 북 베링해의 트롤 영향연구(NETS)는 현재 금지된 구역의 시험용 저층 트롤을 운영 중임
 - 연구의 목표는 저층 트롤이 해저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상업어업의 관리를 안내하기 위함임
 - * NETS: Northern Bering Sea Effects of Trawling Study
 - 하지만, 부족민들은 연구가 해저에 손상을 끼치며 파괴적인 어업방식을 선택하고 있다고 주장함
 - 생물다양성 센터는 부족민과의 소통이 충분하지 않았고, 환경과 문화에 해를 끼치는지 충분히 분석하지 않았기에 연구의 합법성에 의문을 품고 있음
 - 부족 정부와 환경지지자들은 북 베링해의 트롤 연구에 반대하며 해양생태계를 보호를 동원할 예정임

※ 출처: SeafoodSource¹⁾

1)<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alaska-tribes-to-sue-to-stop-experimental-northern-bering-sea-bottom-trawl-study> ('24년 02월 22일 검색)

□ 캘리포니아 주 의회원, 스티브 베넷이 의회법2220에서 캘리포니아 주의 자망어업 제한을 제시함

- 자망어업이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연안에서 금지되어있지만, 채널 제도 주변이나 미연방 안에서는 아직도 합법으로 남아있음
- 제안된 법안은 채널 제도의 해안에서 3마일 (약 4.83 km) 너머의 구역을 포함한 자망어업 금지 구역을 추가하고 있음
- 법안은 대백상어와 농엇과 큰 물고기(Giant Seabass)의 부수어획 면제 제외해, 이들 종에 대한 어획 제한의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또한, 이 법안은 자망을 이동 불가능하게 만들고, 캘리포니아에서 어업할 경우,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생물부의 권한으로 어획 옴저버를 허가받게 할 예정임
- 해양 자원 재생 연구소*의 지지를 받은 이 법안은 지속가능한 어업활동을 촉진하고 캘리포니아의 해양생명을 보호하는 노력과 그 길을 나란히 함
-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30년 넘게 자망에 대한 반대를 하며 금지에 찬성했었음. 더 나아가, 2022년에 통과된 유망 현대화 및 부수어획 감소법**이 2027년까지 캘리포니아 황새치 어업에서 큰 유자망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시킬 예정임

* 해양 자원 재생 연구소: Oceana and the Resource Renewal Institute

** 유망 현대화 및 부수어획 감소법: Driftnet Modernization and Bycatch Reduction Act

※ 출처: SeafoodSource²⁾

2) <https://www.seafoodsource.com/california-bill-would-further-limit-gillnet-fishing> ('24년 02월 22일 검색)

- 미국 농무부에 의하면 2023년 미국의 수산물 무역 적자가 203억 달러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남
- 2022년의 수입액의 경우 300억 달러였으나 2023년 250억 달러로 줄었으며 수출액의 경우 2022년 51억 달러였으나 50억 달러로 이전 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유일하게 미국보다 수입 액수가 큰 국가는 EU로, 이들의 수입액은 333억 달러임
 - 수산물 수출의 경우 미국은 2022년 10위를 기록하였음
 - 중국이 수출액 224억 달러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그다음으로 노르웨이가 155억 달러, 에콰도르 92억 달러, 칠레가 85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미국 수산물의 주요 목적지는 캐나다, 중국, 일본, 한국 그리고 네덜란드임
 - 2022년 미국의 주요 수산물 수입원은 캐나다, 칠레,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이 있으며 이들은 수입 가치로 5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음
 - 28년 동안 미국의 가장 큰 무역 적자는 2021년 248억 달러였음
 - NOAA의 발표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의 수산물 수출 가치는 16퍼센트가 하락한 가운데 수입의 가치 경우 130퍼센트 증가하였음
 - 미국의 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1995년 16파운드에서 2021년 20.5파운드로 꾸준히 증가하면서 국내 소비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국내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세계의 공급원에 의존하고 있어 추정 소비량의 약 80퍼센트가 수입에서 오는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추세로 인하여 국제 무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침체와 COVID-19와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수산물 무역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 출처: SeafoodSource³⁾

³⁾<https://www.seafoodsource.com/news/supply-trade/us-seafood-trade-deficit-hit-usd-20-3-billion-in-2023>
(2024년 2월 28일 검색)

- **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 학술지에 따르면 1971년 이후 인간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랑어의 수은 농도가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프랑스 연구진들은 1971년부터 2022년까지 수천마리의 다랑어 샘플을 분석하여 수은 농도 변화를 측정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 세계 수은 방출량은 감소한 것에 비해 다랑어의 수은 농도 레벨이 변화하지 않고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음
 - 연구진들은 10년 동안 1971년부터 2022년까지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에서 어획된 열대 다랑어(가다랑어, 눈다랑어, 황다랑어)의 샘플을 수집하여 기존 보유 데이터와 함께 연구를 진행하였음
 -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과거 바다 깊이 축적된 수은이 다랑어가 서식하는 위치로 계속 순환하는 것으로 보임
 - 가장 엄격한 수은 규제를 적용하더라도 바다에서 수은 농도가 감소하기까지 10년에서 25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다랑어 수은 농도 감소까지는 추가 10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함
 - 2013년 채택된 Minamata 협약에 따라 수은 기준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수은 배출에 큰 영향을 끼치는 금 광산 무역을 제대로 규제하지 않고 있어 허점이 있음
 - 수은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성분이긴 하나 광업과 화석 연료 사용 등의 인간 활동으로 대량의 수은 오염이 발생하고 있음
 - 인간은 수산물을 섭취함으로써 수은에 노출되며 태아의 뇌를 해칠 수 있으며 인간의 소화, 면역 체계에 독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
 - 다수의 전문가는 수은 규제 강화를 위해 전 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을 강조하였음

※ 출처: New York Times⁴⁾

4) <https://www.nytimes.com/2024/02/27/climate/tuna-mercury.html> (2024년 2월 28일 검색)

- 미국 상원의원 Chris Murphy(민주당, 코네티컷), Richard Blumenthal(민주당, 코네티컷), 그리고 Elizabeth Warren(민주당, 메사추세츠)은 대서양 연안의 상업적 어업을 규율하는 낡은 법을 현대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였음. 수온 상승으로 인한 어류 분포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서양 해역 내에서 어획할 수 있는 어종과 양에 대한 규제는 지난 수십 년간 업데이트되어 오지 않았음.
- 보도자료에 따르면, 상업 어민들은 조업을 위해 더 멀리 나가야 하고 쿼터 제한으로 인해 잡은 어류를 다시 돌려보내야 했고, 이는 더 높은 어획사망율을 초래하였음. 보다 건강한 주간 어업 증진 전환법(SHIFT법: Supporting Healthy Interstate Fisheries in Transition Act)은 연방 어업관리계획 및 대서양 쿼터 할당을 관할하고 있는 상무부로 하여금 어업의 지리적 범위 변경을 고려하도록 요구하게 됨.
- 코네티컷 상원의원 Murphy는 자신의 지역 주 내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두고 있음. 그는 2023년 5월에 코네티컷 주의 상업 및 레저 어업 회복을 촉진하는 롱아일랜드 사운드 정화 사업에 연방과 주 지출을 늘리는 법안을 발의하였음. Murphy는 또한 2023년에 양식업을 위한 연방 지출을 1,900만 달러로 늘리는 데 기여하였음.
- “수온이 상승하면서, 연안의 어류는 북쪽으로 회유하고 있다. 이는 코네티컷 어민들의 어업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다. 우리는 어민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하고, 이 법안은 우리 주를 힘들게 하는 낡은 정책들을 완전히 업데이트할 것이다”고 Murphy는 말했음.
- Blumenthal 상원의원은 그의 커리어 초기에 환경 오염에 초점을 두었었음. 2021년에, Blumenthal 의원은 다른 상원의원들과 함께, 사료용 어류 보존을 위한 법을 도입하였음. 청어, 정어리, 그리고 기타 기름진 미끼 어류들은 사료용 어류로 간주되고 더 큰 어류와 수산생명들에 필수적인 식량원임. 이 법안은 상무부 장관이 사료용 어류에 대한 정의를 만들하고 이 어종들의 보존관리를 개선하도록 Magnuson-Stevens 어업 보존법을 개정함.

- “SHIFT법은 코네티컷 내 어업 활동과 청색 경제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Blumenthal 의원은 말했음. “기후변화가 우리의 바다를 급격히 변화시켜 우리 어민들이 쿼터를 소진하기 위해 수백 마일을 이동하게 하거나 값비싼 어류를 버리도록 하고 있다. SHIFT법은 어업관리에서 기후조건들을 우선시 하도록 하여 지역 어민들과 경제, 어족자원에 기여할 것이다.”
- SHIFT법은 상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대서양 국가 해양어업위원회에게 어업 쿼터 할당 결정 시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한 어족자원의 분포를 고려하도록 장려할 것을 요구함. 동 법은 지속가능성을 포함하여, 다른 지역들의 어업 활동 개선을 위해 기존 Magnuson-Stevens 보존관리법을 개정할 것임. 마지막으로, 동 법은 향후 수년간 어업의 회복력을 보장하기 위해 어업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하도록 요구하게 됨.
- 다음을 포함하는 많은 단체들이 SHIFT법을 지지하였음: Oceana, Pew 자선 재단, Cape Cod 상업 어민연합회, Ocean Conservancy, 환경보호기금, 자연 자원보호위원회, 오듀본협회(미국야생동물보호단체).

출처: www.nationalfisherman.com⁵⁾

5) <https://www.nationalfisherman.com/northeast/senators-support-fisheries-in-the-face-of-climate-change>
(1월 30일 기사)

- 인간의 이주가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하늘, 땅, 바다를 통해 놀라운 수준의 이동을 하고 있는 세계 이동성 동물들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개최된 이동성 동물 보호 협약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Migratory Species) 제14차 당사국 총회(COP14) 개최 시점에 발표된 세계 이동성 동물 현황 보고서는 이 경외할 만한 동물들이 직면한 현실을 최초로 조명하였음.
- 보고서는 이동성 동물들이 특히 남획과 서식지 파괴, 퇴화와 분열로 인해 직격탄을 맞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이러한 압력의 결과, CMS 등재 종 중 1/5은 멸종위기에 처했고 44%는 개체 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해양생물의 상황은 더 심각한바, CMS 등재 해양생물종의 97%는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고 함.
- 2월 17일에 폐회한 COP14는 이동성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채택하였음. 협약 관리종에 14개 종이 추가되었음. 여기에는 스라소니(Eurasian Lynx), 마눌(Pallas's Cat) 그리고 모래범상어(Sand Tiger Shark)가 포함됨. 침팬지와 기린과 같은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도 있음.
- 회의에서는 조약 당사국인 133개 회원국에서 온 대표자들에 의해 100개의 주제들에 대한 결의, 결정 및 단합된 행동들이 채택되었음.
- 20년에 걸친 협상 끝에, 30개 범위국가들에 걸친 중앙아시아 철새 이동 경로(Central Asian Flyway)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 채택된 계획에는 인도 정부로부터 재정지원 하에 인도 내 조정기구의 수립이 포함됨.
- COP14 주요 결과에는 새로운, 과학 기반의 2024-2032년 기간을 위한 사마르칸트 전략계획(SPMS: Samarkand Strategic Plan for Migratory Species)이 포함됨. SPMS 비전 선언은 6개의 목표를 제시함: 이동성 동물의 보존상태 개선; 이동성 동물의 서식지 유지 및 회복; 이동성 동물에 대한 위협을 "상당한 정도로" 감소시키거나 제거 등. SPMS는 또한 적절한 지식, 역량 및 자원을 통해 CMS 이행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음.

- CMS COP14 사이드 행사로서, 새로운 CMS 챔피언들을 치하하기 위한 챔피언의 밤 행사가 진행되었음. 챔피언들은 이동성 동물 보존을 위한 노력에 대해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CMS 보도자료는 전했다.
- 챔피언들에는 2024-2026년 기간 중 생태학적 연결성 확보에 대한 기여로 상을 받은 우즈베키스탄 정부도 포함됨. 생태학적 연결성은 우즈베키스탄의 환경 및 정치 아젠다의 중심에 있음.
- 인도 정부도 중앙아시아 철새 이동 경로 내 새들의 보존에 대한 기여로 상을 받았음. 중앙아시아 철새 이동 경로는 182개 종, 279계군의 새들이 사용하고 있고, 이 중 29개 종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음.
- 이러한 기여는 지역 내 협력 제고 및 시너지 촉진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CMS 중앙아시아 이동 경로 계획의 수립을 지원할 것임.

출처: www.indepthnews.net⁶⁾

6) <https://indepthnews.net/un-meeting-agrees-actions-for-the-conservation-of-migratory-species-of-wild-animals/>
(2월 19일 기사)